

## 6 건설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골수성백혈병

성별	남성	나이	61세	직종	건설 기술직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 1 개 요

근로자 ○○○은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약 35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2014년 1월 신체피로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골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 2 작업환경

○○○은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약 35년간 주택, 아파트, 학교, 상가 등 건물의 신축, 중축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서 거푸집 제작,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다. 형틀목공의 거푸집 제작,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면서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로는 소음, 콘크리트 분진, 유기용제(박리제) 등이 있다. 특히 거푸집공사에서 콘크리트와 거푸집 분리를 위해 박리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유기용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거푸집 공사는 옥외에서 작업이 수행되며, 특히 박리제 도포(기름칠) 작업은 월 2~3회, 1회당 1~2시간 정도로 간헐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므로 유기용제 노출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에 근로자가 작업했던 건설현장에서 사용하였던 박리제를 수거하여 성분 분석 해본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하는 벤젠 등의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형틀목공은 단일 건설현장에서 단기간(평균 3개월)에 거푸집 공사를 수행하고, 거푸집 공사가 완료된 후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거푸집 공사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인 콘크리트 분진, 소음, 박리제 등을 제외한 다른 건강유해인자에 노출될 확률은 낮다고 사료되었다.

### 3 해부학적 분류

- 림프조혈기계암

#### 4 유해인자

- 화학적 요인(유기용제)

#### 5 의학적 소견

○○○은 2014년 1월 신체피로 증상으로 내과의원에 방문하여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여 대학병원을 방문하였고 골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M1)으로 진단받았다.

####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1979년부터 2014년까지 약 35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과 관련 있는 유해 요인으로는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고무제조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작업내용, 노출가능 화학물질의 MSDS 검토, 성분분석 결과, 문헌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인자인 벤젠,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지 않았거나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